

히스패닉 사회의 이해

다섯째 마당
칠레

담당교수: 이재학

1810년 독립

- 칠레 북부 아따까마 사막에 대한 소유권 분쟁
 - => 태평양 전쟁(1879-1883년) 발발
 - => 칠레 vs. 페루, 볼리비아 연합군
 - => 칠레군 승리(1881년 리마 점령)
 - => 볼리비아 내륙국으로 전락, 페루 아리카 상실
 - => 페루 재정 수입 1/3 감소, 아따까마 오늘날 북부의 상업 요충지
 - => 강성한 칠레군(2차 대전 이전까지 독일군에 의해 훈련)

- 20세기 초반까지 정치적 혼란 거듭
- 1930년대 정당제도 확립, 좌파와 우파의 대립
- 마르크스주의와 노동운동의 연계, 대지주에 대한 대항
- 대지주의 hacienda
- 1970년 대통령선거에서 마르크스주의자인 살바도르 아옌데 대통령 당선, 사회주의 정책 실시
 - => 높은 인플레이션, 경제기반 약화
 - => 중산층 이상의 보수엘리트, 대지주, 군부의 지지 확보하는데 실패, 미국 닉슨 정부의 반혁명 전략(2000년 12월 클린턴 대통령 CIA의 아옌데 정권 붕괴개입 보고서 공개 및 유감 표명)

- 1973년 9월 피노체트 장군의 군부쿠테타
=> 의회해산, 수많은 민주인사 투옥, 고문, 납치, 살해

<=> 미국식 자유개방경제정책을 채택, 부정부패 척결 및 경제발전에 주력, 남미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인플레이 유지, 남미국가 중 가장 개방되고 안정적인 시장경제유지 (포퓰리즘의 전통이 강한 아르헨티나와 비교: 페론정권)

=> 건강한 시민의식보다 소비주의에 탐닉, 정치에의 무관심 초래(낮은 투표율)

=> 칠레인들의 비정치화 경향



자료출처: <http://anticomunismo.8m.com/tata4.html>

- 아옌데 대통령-1973년 9월10일, 칠레 및 미국의 군함 발파라이소 에 집결, 9월 11일 피노체트 군부의 대통령궁 습격(전투기의 폭격으로 화염에 휩싸임), 아옌데 자신이 직접 총을 들고 저항-칠레의 주요 방송국들을 점령- 대통령, 유일하게 점령 당하지 않은 국영 방송 마가야네스 라디오와 전화를 연결, 마지막 대국민 성명을 발표=> “칠레국민 만세, 노동자 만세! 이것이 나의 마지막 말이다. 나는 나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” => 최후의 라디오 연설 후 숨짐(자살/타살 여부 아직도 논란)=>, 대통령궁 경호원 구타, 고문 후 총살(시신에 수류탄 투하, 흔적 없음)
- 쿠데타 성공 후 일주일 동안 3만5천명-4만명 가량의 칠레인 체포-칠레 국립경기장 ('죽음의 경기장')에 구금, 고문, 살해
- 이사벨 아옌데(1942년생)- 아옌데 대통령의 조카, 대통령 살해 후 군부에 수배된 사람들의 망명을 도움=> 자신도 베네수엘라 망명 후 각지를 유랑.
- <영혼의 집> : 칠레의 근, 현대사를 마술적 사실주의 기법을 사용하여 창작
- 마술적 사실주의(realismo magico)- 중남미의 잔인한 현실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소설기법 (1950년대 Boom 소설)=> 백년동안의 고독(Gabriel Garcia Marquez) 등



자료출처: http://en.wikipedia.org/wiki/Isabel_Allende

칠레 정치시스템의 특징

- 지리적 고립감에 의한 국민적 연대감 높은 편
- 남미에서 유일하게 포퓰리즘의 전통이 없음
 - => 비교적 일찍 확립된 정당시스템
 - => 한 개인의 카리스마가 아닌 정당시스템에 의하여 움직이는 정치시스템
- 다른 남미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정당구조가 취약하고 그 결과 국민들이 한 지도자에 의해 모든 것을 이루려는 경향 (아르헨티나의 페론, 메넴, 베네수엘라의 차베스, 페루의 후지모리)

칠레의 경제성장

- 1989년 피노체트의 민정이양, 기독교 민주당의 파트리시오 아일윈 대통령당선, 의회재구성
 - => 피노체트 1999년까지 군총사령관직 유지
- 80년대와 90년대에 매년 한자리수의 인플레이와 7%대의 고도경제성장 이룩
- 피노체트의 시카고학파
 - =>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신봉
 - => 경제의 활성화와 성장 초래(해외자본의 국내유치, 국영기업의 민영화, 국내기업의 해외매각,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향상)
 - => 소득분배의 악화, 중산층 몰락, 실업자 양산, 국부의 해외유출 (한국의 정치·경제상황과의 비교)
- 피노체트 독재기의 경제성장 및 정치적 탄압

- 친피노체트파와 반피노체트파의 분열(칠레인의 약 50%정도가 피노체트 인정)
- 부정부패 문제 해결
 - => 국가 청렴도 19위 vs. 한국 48위
 - => 19세기초에 확립된 의회 민주주의제, 유럽 이민자가 전 국민의 90%이상 차지, 피노체트 정권의 부정부패 방지노력
- 2000년 1월 좌파연합출신의 리카르도 라고스 대통령 당선(아엔데 이후의 첫 사회당 출신 대통령, 아엔데의 후계자, 민주연합[좌파+우파의 지지 받음]에 의한 당선)
 - => 군정잔재의 완전한 청산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노력, 칠레군부와의 관계가 과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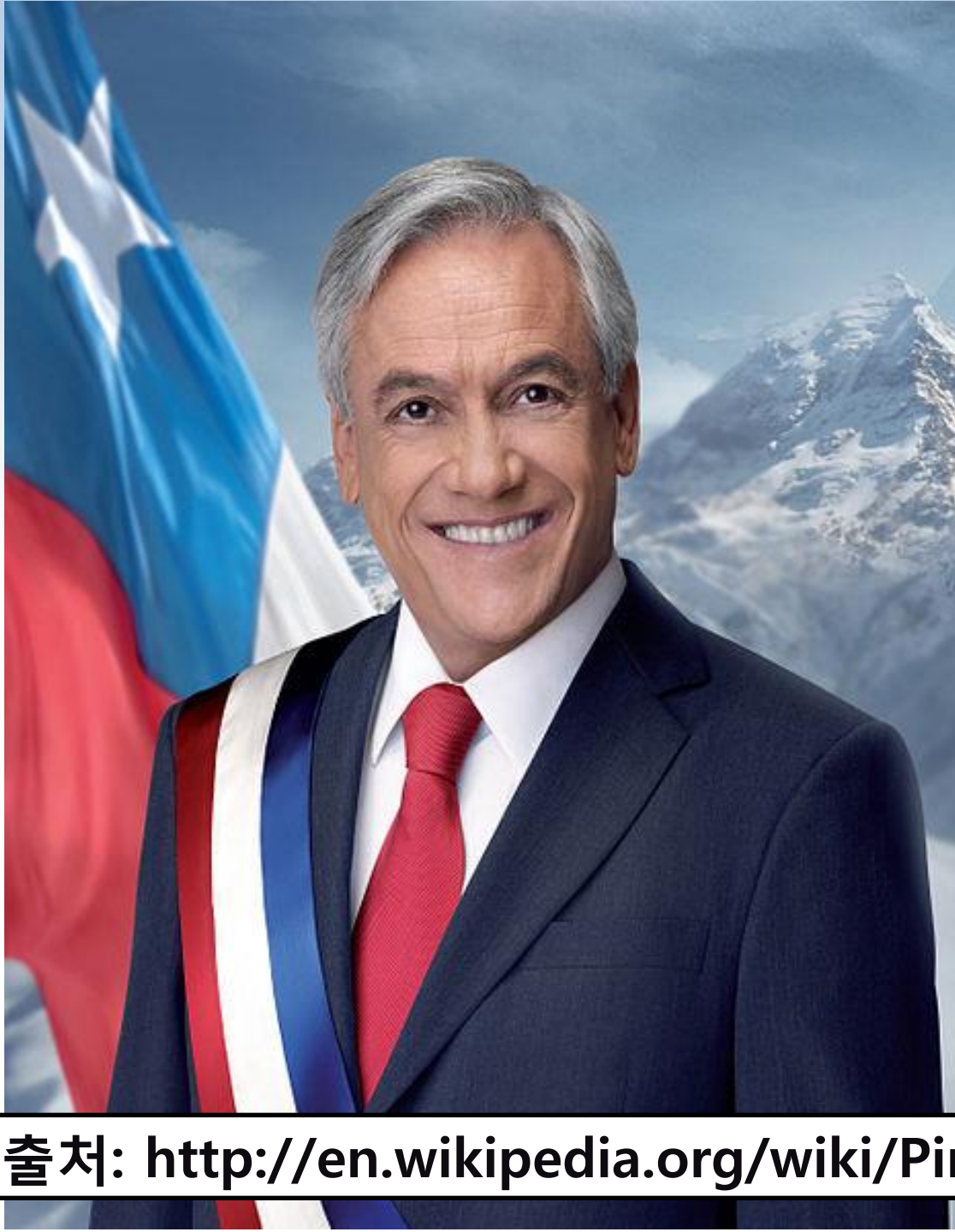
- 민주화 이후 들어선 90년대의 아월린 정부와 프레이 정부, 피노체트 시카고 학파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그대로 답습, 연평균 7%의 경제성장과 한자리의 인플레이션 유지, 남미의 발전모델 제시
 - => 90년대 말부터 실업률 증가, 경제성장 둔화
 - => 신경제주의에 대한 반감 확산, 라고스 대통령의 좌파 정권 탄생 원동력
- 라고스 대통령,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반대
 - => 21세기 라틴아메리카의 큰 흐름 형성 (한국의 경제 상황과 비교)
 - => 2005년 9월 대통령의 3군 사령관 해임권 부활, 종신 및 임명직 상원 의원제 폐지, 피노체트를 인권유린 혐의로 기소
 - => 2006년 12월 심장병으로 숨짐

- 2006년 3월 11일 좌파인 미첼 바첼레트 대통령 취임 (이혼 경력의 미혼모, 중도좌파, 칠레의 첫 여성 대통령)
=> 칠레는 가톨릭 신자비율이 89%에 이르는 남미에서 가장 보수적인 국가 중의 하나
- 아옌데 정권의 요직을 맡고 있던 아버지가 피노체트의 쿠데타 이후 '국가 반역죄'로 체포, 고문으로 사망
- 의대 학생신분으로 반정부 활동, 체포 및 국외추방
- 79년 독일에서 귀국 후 정치활동 재개, 극좌 탈피, 사회민주주의자 표방 시작
- 시민들에게 가혹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폐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의 사회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
- 여성의 사회진출과 교육의 질 향상 주장
- 칠레의 과거사 청산 기사 [..₩..₩칠레과거사청산.hwp](#)



자료출처: http://en.wikipedia.org/wiki/Michelle_bachelet

- 미첼 바첼레트(Bachelet)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칠레 역사상 최고인 80%(2009년 기준), 성공적 경제운용=> 칠레 헌법상 중임만 가능, 새 대통령 임기 4년 후에 재출마 가능
- 2009년 12월 17일 대통령 결선 투표에서 20년 만에 우파 피네라(Pinera) 대통령 당선 (51.61% vs. 집권중도좌파연합 후보 Frei 전대통령[1994-2000] 48.38%)- 가톨릭대학 수석졸업, 하버드대 석, 박사 3년 만에 수료, LAN 항공 대주주, 방송사 칠레비전 소유, 주식평가액만 10억달러 추산
- 급격한 정책변화 없을 것이라고 강조
- 집권여당 참패 이유는 공천 실패가 원인



자료출처: <http://en.wikipedia.org/wiki/Pinera>

- 칠레북부 코피아포의 산호세 광산 붕괴, 광부 33인 69일만에 생환(2010년 10월13일)=> 칠레인 단결, 칠레정신(soul) 부각, 국가브랜드 상승, 대통령 지지도 급등, 각국 언론에서 자국 대통령과 비교기사(칠레 지도자들의 리더십을 배워라)=> 일부 음모론 제기
- 60만명에 달하는 독일계 칠레인들(칠레노 알레마네스)=> 1848년 독일의 자유혁명 실패 후 이민=> 민족적, 지정학적 연대 보다는 언어적 유대감으로 독일적인 사회전통과 맞닿아 있음=> 이후 오스트리아, 스위스, 알자스 이민자들을 흡수=> 오랜기간 칠레의 정치, 경제, 문화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

칠레의 경제상황

- 04-05년, 2년 연속 6%대의 높은 경제성장률 달성
- 1인당 GNP 2493불(1980년)=> 4,300불(2002년)=> 7,215불(2005년)=> 1만117달러(2008년)
- 지난 20년간 연평균 성장률 5% 상회
- 2006년에는 국제유가상승에 의한 인플레이션 압력과 긴축통화 정책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 저하 2005년 소비자 물가 4.5% 상승, 실업률 8.5%
- 2008년 금융위기에도 1.8% 성장
- 칠레의 경제성장 [..www.chile.gov.cl/estadisticas/indicadores/economia/indicadores/economia.htm](http://www.chile.gov.cl/estadisticas/indicadores/economia/indicadores/economia.htm)

한국의 진출전략

- 내수시장은 좁으나 남미 자유무역의 선두주자로서 역내 교두보로 활용의 필요성 대두
- 내수증대로 식품, 의류, 전자제품 등을 중심으로 한 소매업 판매액이 05년 사상최고액 기록(297억불 돌파)
 - => 04년 4월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계로 한국상품의 가격 경쟁력 확보, 자동차, 모바일, 가전 등에 대한 브랜드 마케팅 강화
 - => 대칠레 수출: 4.5억불(02)=> 5.2억불(03)=> 7.09억불(04)=> 11.51억불(05)=> 30.3억불(09)
5년간 6배 증가
 - => 대칠레 수입: 13.3억불(04년)=> 41.3억불(09년)
5년간 약 3배 증가

- 무역적자의 원인은 구리를 비롯한 광물수입 등에 기인
- 구리, 아연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성과
- 칠레 자동차 시장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
 - => 한국산 승용차의 FTA체결 후 5년간 연평균 35%의 수출 증가율
- 2003년 일본차 점유율 23.5%, 한국차 18.8%
 - => 2007년 일본차 25.2%(5만7332대), 한국차 29.3%(6만6729대)
- FTA 체결 후 5년간 휴대폰 수출증가율 연 117%, TV는 연평균46% 증가율
- 칠레- 중국, 일본, 인도 등과 FTA 체결=> 한국의 FTA 선점효과 점차 희석

- 칠레산 포도 계절관세 부관=> 11-4월에 집중 수입=> 국내 포도 재배면적 오히려 증가
- 돼지고기 수입은 연평균 24.7% 증가=> 국내 돼지고기 사육두수는 하락하다 다시 회복(2003년 923만두=> 2008년 908만두), 산지가격은 예전보다 상승(100kg 기준 2003년 16만3000원=> 2008년 27만6000원)
- 한-칠레 FTA로 국내시장에서의 와인대중화 계기 마련
- 소비자의 선택권 증가 (원-원 효과)